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8일 수요일 음 2월 24일 (1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6-9°C, 낮 최고 기온은 14-15°C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precipitation and cloud cover percentage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moonrise and moonset times, and moon phase.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including daily high/low temperatures and weather icons.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including UV index and air quality.

월드뉴스

군사기밀 담긴 노트북, 이베이에서 판매돼

독일군 폐기과정 오류 시인

군사 기밀이 담긴 독일군의 구형 노트북이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에 판매되는 일이 일어났다.



훈련 중인 독일전차.

하는 절차도 담겨있었다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해당 파일은 접속 시 암호를 입력하게 돼 있었지만, 연구진은 암호창에 '게스트' (손님·guest)를 입력해 접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독일군은 "구형 컴퓨터들은 모두 폐기 처분했으며 데이터를 지우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해당 컴퓨터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러 "구형 컴퓨터들은 제조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습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fax numbers.

건강&생활



김연덕

제주성모안과 원장

개원가에서 일을 시작한 뒤 새삼 느꼈던 건, 세상에 '다래끼' 환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알러지가 많아지는 계절에는 눈이 가렵다고 손대면서 다래끼 환자가 더 늘어난다.

눈꺼풀에는 눈물의 구성요소인 기름 성분을 만들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짜이스샘과 마이봄샘, 팜을 배출하는 쉘샘 등의 분비관이 있는데, 다래끼는 이러한 분비샘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여기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급성 세균 감염인 '다래끼'와 무균성 육아종성 염증인 '콩다래끼'가 있다.

다래끼는 급성 세균감염에 의한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화성성 염증이 빠듯하게 붓고 통증이 있으며, 피부 아래 또는 결막 아래 농양이 형성된다. 주로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이고, 피부에 가까운 짜이스샘이나 쉘샘에 생기는 콩다래끼, 눈꺼풀판에 있는 마이봄샘에 생기는 속다래끼의 형태로 나타난다.

결다래끼는 눈꺼풀 표면에 가깝게 위치해 초기에는 눈꺼풀 가장자리가 붓고 통증이 있다가 며칠 지나면 통증이 줄면서 농양(고름집)이 생기고 피부 부로 배출된다. 속다래끼는 눈꺼풀 깊숙이 위치하고 눈꺼풀을 뒤집으면 보이는 결막에 노란 농양점이 관찰된다.

콩다래끼는 마이봄샘 입구가 막혀 배출되지 못한 기름 성분과 과산화지방이 쌓이면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무균성 염증이다. 통증은 없고 눈꺼풀 피부 아래 팔알 크기의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게 된다. 콩다래끼에 세균이 감염되면 속다래끼와 비슷하게 변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다래끼는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진다. 하지만 주변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부종이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증상 완화를 위해 항생제 안약 및 안연고를 사용하고, 항생제를 먹을 수도 있다. 더운 찜질을 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약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이른바 '고름을 짜다'고 하는 질개 처치를 하게 되는데, 국소 마취를 해도 눈을 제거하다 보면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결절이 남으면 스테로이드를 소량 주사해 나아지게 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다래끼가 나면 되도록 빨리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낫다. '저절로 호전되겠지' 싶거나 잘 몰라서 그냥 두다가 '익혀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 어린아이들은 국소마취로 절개하게 될 경우, 통증만이 아니라 무서움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할

한다. 의료진이 억지로 아이를 잡고 누르면서 처치할 수밖에 없는데, 한참 울고 실랑이하다 보면 의사로서도 아이 아파서도 참 난감하다. 처치가 끝나고도 병원에 오기를 꺼려해 차후 다른 진료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신마취를 권하면 부모들의 고민이 커진다.

성인에게 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콩다래끼가 날 경우, 드물게 피지샘 안과 같은 악성종양인 경우도 있어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봄, 가을 같은 환절기에는 가능한 눈은 합부로 만지지 않고, 평소에도 손을 깨끗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요즘은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통해 손을 자주 씻고 얼굴을 만지지 않는 일이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는데, 이는 다래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콩다래끼가 자주 생긴다면 눈꺼풀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열린마당

힘냅써 대구, 제주가 응원한다



홍정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돼 간다.

이러한 국난 속에서 우리는 연대의 힘을 보았다. 자발적으로 대구로 모여든 의료진들, 임관 되자마자 곧바로 대구에 투입된 간호조교들, 끊임없는 기부와 성금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끈기 없는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금 같은 존재가 누군지 알게 해줬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계속되는 재해로 기근에 시달리는 제주도민을 살려낸 김만덕 정신이 이런 시기에 생각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역사적으로 결흔식이나 장례식을 치를 때 이웃들이 나서서 서로 돕는 제주

만의 수놓음 문화나 근래에 추진된 '김만덕 나눔 쌀 천 선 쌀기 운동'은 제주도민의 정체성의 발현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제주민의 정신은 빛났다.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최근 대구시민에게 김만덕 쌀 1.5t을 지원하고 제주도청, 지역업체 등 관계기관들이 김밥과 삼다수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많은 단체들은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진과 해당 지역 공무원의 탈진 소식을 듣고 바로 '비타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구·경북에 김밥보내기 운동을 펼쳤다.

수많은 자연재난 속에서 본능적으로 나눠야지만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은 제주도민의 정신으로 승화했고 4:3 사건 등 역사적 아픔 속에서 남의 고통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공감능력을 가진 제주도민의 포용과 관용의 정신은 영원하리라 생각한다.

'지픈 물도 넘어 봐야 알곡, 사름 속도 지내 봐야 안다(깊은 물도 넘어야 알곡, 사람속도 지내야 안다)' 제주 속담을 제주도에 산지 6년 만에 확실히 알게 됐다.

제주에 오기 전 4년간 살았던 대구는 여름철 뜨거운 태양아래 다이내믹함을 선사해주는 고향과 같은 도시였다. 힘냅써, 대구!

코로나19를 이기는 힘, 청렴



이하영

제주도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선포하며 코로나19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초기, 중국과 한국에 집중 유행하면서 전 세계인의 눈이 우리를 향해 감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감염병 전파를 막는 핵심은 '거짓말과의 싸움이다'라고 한 어느 감염병 전문의의 소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는 듯하던 시기에 터진 특정 단체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의 급속한 전파는 신속하지 못한 정보공개, 집단 내 소속원의 중국 우한 방문 사실의 은폐, 단체의 소속임을 밝히지 않고 방역업무를 수

행하다가 발생한 동료에게로의 전파, 지역감염이 급증한 지역 주민임을 숨기고 타지역 응급실에 입원해 병원전체를 폐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들은 모두 거짓말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청렴하지 못한 마음과 행동이다.

이기심과 "나는 괜찮겠지"라는 무사안일, 개개인이 땀땀하지 못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셜네트워킹을 통한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유포하는 일 등은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유발하고 코로나19를 급속히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구 전체가 코로나19로 불안해진 지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앞선 대처능력과 시민의식이 빛을 발하고 있다. 물리적 차단과 폐쇄를 택한 중국과 달리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모든 국민 개개인의 위생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효를 거두고 있다.

개개인의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만 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개인의 청렴 의식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잊지 말고 다같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주간농업농촌소식 advertisement with text about agricultural news and contact information.

Medical advertisement for Donggu Dental Clinic, including service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Hanra Telesol (주)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주) offering IT solutions and services.